

# 영어의 소절과 주술관계

김 선 응

## 1. 서 론

주술관계(predication)는 그리스·로마의 고전적 문법연구에서 시작하여 전통문법을 거쳐 현대의 GB이론에 이르기까지 어떤 형태, 어떤 종류의 문법에서도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기술되어 온 간단한 내용의 문장구조로서 하나의 절(clause) 속에 존재하는 주어(subject)와 술부(predicate)의 관계를 의미한다.

본고의 목적은 Chomsky (1981)의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LGB)* 이후 수많은 논의와 논쟁거리를 제공했던 영어의 소절(small clause)<sup>1)</sup>과 관련된 문제점의 일부를 주술관계이론(predication theory)에 입각한 분석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다음의 예문을 보자.

- (1) a. \*John considers [ $\alpha$  PRO sick]
- b. John left the room [ $\alpha$  PRO angry]

(1a)의 경우 보문소절(complement small clause)의 주어는 PRO가 될 수 없으나, (1b)에서 보듯이 부가소절(adjunct small clause)의 주어는 PRO가 가능하다. 이렇게 PRO를 설정함으로써 생겼던 문제, 즉 영어의 보문소절의 주어 자리에는 PRO가 올 수 없으나 부가소절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그 주어 자리에 PRO가 온다는 사실과 관련된 문법성의 문제를 PRO를 설정하지 않고 주술관계이론에 입각한 분석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제 2 장에서는 주술관계를 처음으로 GB의 문법연구에 도입한 Williams (1980)의 주장을 소개하고 이를 Rothstein (1985)의 이론과 비교하여 논하게 된다. 제 3 장에서는 Rothstein (1985)에서 제시된 주술관계이론 및 주술관계연결규칙(Predicate Linking)을 기본으로 하여 Chomsky (1981), Stowell (1981, 1983), 양동휘(1984) 등의 주장들을 비판·검토하게 될 것이다. 또한 주술관계이론에 입각한 분석이 유사사역구문(quasi-causative construction) 또는 결과의 술부(resultative predicate), 상승구문(raising construction) 및 지각·사역동사의 to 없는 부정사구문(naked infinitive construction) 등의 문제를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가도 살펴볼 것이다.

## 2. 주술관계 이론

### 2.1. Williams (1980)의 제안

Williams (1980)의 "Predication"은 주술관계의 개념을 GB이론의 hot issue로 발전시켜 놓

1) 최근 GB이론에서 소절(small clause)이란 소위 INFL이 명시되지 않은 절을 뜻한다. 따라서 시제가 있는 결과 to-부정사 구문의 절을 제외한 모든 절이 소절이 된다.

은 논문이다. 그는 그의 주술관계규칙(Rule of Predication)이 종래의 의무적 통제구조 (obligatory control structure), 외치구조(extraposition clause), 목적의 부사절(purpose clause) 등의 특성을 한데 묶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Williams (1980)에 있어 술부(predicate)란 주어(subject)를 필요로 하는 성분이며 주술관계규칙이 그 술부와 주어에 동일한 지표(index)를 부여하게 된다. 그는 주술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Williams(1980, 204)).

- (2) The subject must c-command its predicate and the predicate must be c-subjacent to its subject.<sup>2)</sup>

술부는 어휘범주(lexical category)의 최대투사(maximal projection)로서 AP, NP, VP, PP, S 때로는 S까지를 포함한다. 다음의 예문에서 이탤릭체의 단어 사이에는 주술관계가 성립한다.

- (3) a. *John is sad.*  
 b. *John ate the meat naked.*  
 c. John ate *the meat raw.*  
 d. John made *Bill mad.*  
 e. John loaded *the wagon full.*  
 f. John loaded *the hay* into the wagon *green.*  
 g. John kept *it near him.*  
 h. *John died.*

이러한 주술관계가 성립하지 못하면 그 결과 해당 구문은 비문법적인 것이 된다.

- (4) a. \*John loaded the wagon with *hay green.*  
 b. \*John loaded the hay into *the wagon full.*  
 c. I presented *it* to John *dead.*  
 d. \*I presented John with *it dead.*

(4a)에서 *hay*는 *with*와 함께 PP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green*을 성분통어(c-command)하지 못하므로<sup>3)</sup> 그 결과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4b)와 (4d)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계가 성립하지만 대조적으로 (4c)의 경우에 주어 *it*는 술부 *dead*를 성분통어하고 있으므로 주술관계가 성립하여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입각한 Williams (1980)의 주술관계이론은 c-subjacent란 개념의 정의 자체부터 모순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의 예문을 보자.

- 2) 여기서 Williams (1980)은 (i)과 같이 c-subjacent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나 본고의 목적상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 못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i) B is c-subjacent to A iff  
 A is dominated by at most one branching node which does not dominate B.
- 3) 여기서 성분통어의 개념은 Aoun and Sportiche (1983)의 정의를 따른다.  
 (i)  $\alpha$  c-commands  $\beta$  iff  
 a.  $\alpha$  does not dominate  $\beta$ .  
 b. The first maximal projection dominating  $\alpha$  dominates  $\beta$ .
- 또한 이러한 정의에 입각한 지배(government)를 AS지배라고 한다.

- (5) a. *John promised Bill* [*PRO to leave*]  
 b. *I gave John* [<sub>NP</sub> [<sub>AP</sub> *gold*] *apples*]

(5a)의 경우는 술부 *PRO to leave*가 주어 *John*에게 c-subjacent하여 문제가 없지만 (5b)의 경우 술부 *gold*가 주어 *John*에게 c-subjacent하므로 주술관계가 성립하여야 하지만 실제로 *John*과 *gold* 사이에 주술관계가 성립하는지는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하겠다. Williams (1980)의 주장은 이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논문 전체의 논의 전개 자체가 모순점과 오류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더욱 자세한 논의는 본 논문의 요지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illiams (1980)의 주술관계이론은 매우 의미있고 가치있는 것으로서 주술관계의 개념을 GB의 주목할 만한 연구거리로 삼는데 크게 공헌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음 절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Rothstein (1985)의 주술관계이론을 살펴보도록 하자.

## 2.2. Rothstein (1985)의 주술관계이론

Williams (1980)의 주술관계에 대한 주장들을 바탕으로 하여 Rothstein (1985)은 새로운 주술관계이론을 확장·발전시켰는데, 본 절에서는 그녀의 이론을 간단히 훑어 본 다음 앞서 언급했던 (5b)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다.

Williams (1980)와 마찬가지로 Rothstein (1985)도 주어와 술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구조적(non-structural)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 (6) The subject is an argument maximal projection and the predicate is a non-argument maximal projection.

다시 말해서, Rothstein (1985)은 모든 최대범주(maximal category)를 논항(argument)과 비논항(non-argument)으로 구분하고 논항은 주어에 비논항은 술부에 각각 해당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술부는 열려있고(open), 불완전하고(incomplete), 비포화상태의(unsaturated) 함수(function)로서 적당한 논항에 연결되어 포화상태(saturated)를 이루어야 한다. 그녀는 이렇게 모든 최대투사범주를 주어와 술부로 가르치고 이 양자의 관계를 주술관계연결규칙(Rule of Predicate-Linking)으로 연결하고 있다.

### (7) 주술관계 연결규칙

- a. Every non- $\theta$ -marked maximal projection XP must be linked at S-structure to an argument which it immediately c-commands and which immediately c-commands it.  
 b. Linking is from right to left. (English)

이 규칙은 그녀의 포화이론(saturation theory)의 한 구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7)의 정의가 Williams (1980)의 정의와 다른 점은 Rothstein (1985)에게 있어서 주어와 술부는 서로 성분통어(c-command each other)해야 하지만 Williams (1980)는 주어만이 술부를 성분통어한다고 한 점이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8) a. *Mary* [<sub>VP</sub> *saw John*]  
 b. *Mary* [<sub>VP</sub> *ate the carrots raw*]

여기서 (8a)의 주어 *Mary*와 술부인 VP *saw John*과, (8b)의 주어 *Mary*와 술부인 VP *ate the carrots raw*가 모두 최대범주로서 서로 성분통어하므로 각각 주술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8b)의 VP안에서는 또한 *the carrots*와 *raw*가 또 하나의 주술관계를 이루고 있다. Rothstein (1985)은 전자의 경우를 1차적 주술관계(primary predication) 후자의 경우를 2차적 주술관계(secondary predication)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9) a. X is a primary predicate of Y iff X and Y form a constituent which is either  $\theta$ -marked or [+INFL].  
 b. X is a secondary predicate of Y iff Y is an NP  $\theta$ -marked by a lexical head other than it.

(8a)에서 *Mary*와 *saw John*의 관계는 (8b)의 *Mary*와 *ate the carrots raw*와 함께 1차적 주술관계를 이루며 (8b)의 *the carrots*와 *raw*의 관계는 *the carrots*가 동사 *ate*로부터 의미역( $\theta$ -role)을 부여받으므로 2차적 주술관계를 이루게 된다.<sup>4)</sup>

이러한 Rothstein (1985)의 정의를 이용하면 Williams (1980)의 정의로는 문제가 됐던 (5b)의 예문을 잘 설명할 수 있게 된다.

- (5) b. I gave John [NP[AP gold] apples]

즉, *John*은 *gold*를 성분통어하고 *gold*는 *John*에게 c-subjacent하지만 *John*과 *gold*는 서로 성분통어하지 못한다. 따라서 *John*과 *gold*가 아무런 주술관계가 없음을 Williams (1980)은 설명할 수 없지만 Rothstein (1985)은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주술관계이론이 소절분석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논의하도록 하겠다.

### 3. 소절과 주술관계

LGB이후 소절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Chomsky

- 4) Rothstein (1985)의 주술관계연결규칙은 명사구의 경우는 약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i) a. [NP John] [VP performed] [AP drunk]  
 b. [NP [NP John's] [VP performing] [AP drunk]]  
 c. ?\* [NP[NP John's] [N performance] [AP drunk]]  
 d. \*\* [NP[NP John's] [N letter] [AP drunk]]

(i a)의 경우는 주어 *John*과 술부 *performed*가 모두 최대범주이고 서로 성분통어하므로 1차적 주술관계를 이루고 또 하나의 술부는 *drunk*가 2차적 주술관계를 이루어 모든 주술관계를 무리없이 설명한다. (i b)의 경우는 *-ing*를 INFL로 볼 때 (i a)의 경우와 똑 같은 주술관계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i c)의 경우는 파생명사(derived nominal)인 *performance*가 최대투사범주가 아니므로 *John's*와 주술관계로 연결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Rothstein (1985)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performance*는 동사 *perform*과 같은 의미역( $\theta$ -role)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주어 *John's*와 직접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유동하다가(float), *John's*와 들어맞게 되어(match up) 비정상적인(improper) 연결을 이루게 된다. 반면에 (i d)를 보면 *letter*는 부여할 의미역이 없으므로 비정상적인 연결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i c)와 (i d)에서 보는 문법성의 차이가 나오게 된다. 이러한 명사구 내의 주술관계연결의 문제에 관해서는 김선웅(준비중)의 논문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1981), Stowell (1981, 1983), 양동휘(1984)의 소절이론(small clause theory)이고 또 하나는 Williams (1980, 1983)의 주술관계이론(predication theory)이다. 후자의 입장은 Rothstein (1985)과 양동휘(개인 면담)의 주장도 포함된다고 하겠는데, 본 장에서는 이들의 주장을 기본으로 하여 Chomsky (1981), Stowell (1981, 1983), 양동휘(1984) 등의 문제점을 주술관계이론에 따른 분석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도록 하겠다.

### 3.1. 문장소절과 비문장소절

소절을 문장소절(sentential small clause 혹은 non-headed small clause)로 분석하려는 시도는 Chomsky (1981)의 입장으로 소절의 주어를 S의 주어, 즉 [NP, S]로 보는 입장이며, 비문장소절(headed small clause)로 분석하려는 입장은 Stowell (1981)이 대표적으로 소절의 주어를 핵(head)의 최대투사변주 XP의 주어, 즉 [NP, XP]로 보려는 입장이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10) a. John considers [ $\alpha$  that Bill is sick]  
 b. John considers [ $\alpha$  Bill to be sick]  
 c. John considers [ $\alpha$  Bill sick]  
 d. John considers [ $\alpha$  Bill a fool]  
 e. John kept [ $\alpha$  Bill near him]

여기서 Chomsky (1981)의 입장은 (10a)의 보문소절(complement small clause)의 범주  $\alpha$ 는  $\bar{S}$ 이고 나머지 (10b~e)는  $\alpha$ 가 S가 된다. Stowell (1981)의 입장에서 보면 (10a)의 경우는  $\bar{I}$  (=S), (10c)의 경우는  $\bar{A}$ , (10d)의 경우는  $\bar{N}$ , (10e)의 경우는  $\bar{P}$  등으로 각각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Chomsky (1981)나 Stowell (1981)의 소문분석은 양동휘(1984)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모든 소절을 S로 분석하는 입장의 문제점을 다음의 예문을 통하여 생각해 보자.

- (11) a.  $\left\{ \begin{array}{l} \text{consider} \\ \text{b. I } * \text{expect} \\ \text{c. } * \text{feared} \end{array} \right\} [\alpha \text{ John very stupid}]$   
 (12) a.  $\left\{ \begin{array}{l} * \text{consider} \\ \text{b. I } \text{expect} \\ \text{c. } * \text{feared} \end{array} \right\} [\alpha \text{ John off the ship}]$   
 (13) a.  $\left\{ \begin{array}{l} * \text{consider} \\ \text{b. I } * \text{expect} \\ \text{c. } \text{feared} \end{array} \right\} [\alpha \text{ John killed by the enemy}]$

동사 *consider*, *expect*, *fear*는 모두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들로서 소절을 목적절로 택할 수 있으나 예문에서 보듯이 *consider*는 목적소절의 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만, *expect*는 술어가 전치사인 경우에만, 또 *fear*는 술어가 과거분사인 경우에만 각각 가능하다. 만일 (11), (12), (13)의  $\alpha$ 가 모두 S라면 이러한 주절동사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이들 동사가 소절을 목적어로 취할 때 그 소절 속의 술어가 무엇인가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게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어떤 동사가 하위범주구분(subcategorize)될 때 뒤따르는 성분의 범주 자체가 문제가 되며, 그 성분의 내부 요소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는 하위범주조건

의 성질상 매우 이상한 제약이라 하겠다.

또한 Stowell (1981)의 생각대로  $\alpha$ 를 최대범주(maximal category)라고 설정해도 문제가 있다. Stowell (1981)에 따르면 (11)의  $\alpha$ 는  $\bar{A}$ , (12)의  $\alpha$ 는  $\bar{P}$ , (13)의  $\alpha$ 는  $[\bar{+V}]$ 가 된다. 이러한 분석의 문제점은 첫째, 격제약(Case Filter)의 문제이다. Chomsky (1981)의 격이론(Case theory)에 따르면 격부여자(Case assigner)는 최대범주를 넘어서 격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Stowell (1981)은 위의 예문에서 소절의 주어 John은 주절동사 consider, expect, fear 등으로부터 격(Case)을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격제약에 걸림에도 불구하고 (11a), (12b), (13c)는 각각 좋은 문장임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이러한 격제약과 관련된 문제는 Chomsky (1981)의 문장소절분석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고 보겠다.<sup>5)</sup> 둘째, (1a)에서 보듯이 보문소절의 주어자리에는 PRO가 오지 않음을 설명할 수 없다.

(1) a. \*John considers [ <sub>$\alpha$</sub>  PRO sick]

Stowell (1981)에 따르면 (1a)의  $\alpha$ 는  $\bar{A}$ 가 되어 최대범주인데 주절동사 consider는 최대범주를 넘어서 PRO를 지배(govern)할 수 없으므로 (1a)는 문법적인 문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sup>6)</sup>

이상에서 논의된 모든 문제점은 주어의 개념을 구조적(structural)으로 정의하는 데서 기인한다. 즉 Chomsky (1981)의 경우와 같이 문장소절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주어를 [NP, S]로 Stowell (1981)의 경우와 같이 비문장소절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주어를 [NP, XP]로 정의하기 때문에 나오는 난점들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 절에서는 주어의 구조적인 정의를 피하고 주술관계의 토대 위에 개념적(notional)으로 정의하는 주어의 개념을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보도록 하겠다.

### 3.2. 주술관계에 입각한 '소절'의 분석

소절의 분석에 있어서 핵주술관계(headed predication)와 비핵주술관계(non-headed predication)의 어느 양쪽의 경우도 주어를 정의함에 있어 구조적인 관계를 피하고 있다. 즉 전자의 경우는 (14a)와 같이, 후자의 경우는 (14b)와 같이 주어를 정의하고 있다.

- (14) a. The subject is the external argument of X that is outside of XP.  
b. The subject is an argument that binds a predicate variable.

5)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Chomsky (1981)는 A\*라는 비최대범주(non-maximal category)를 설정하여 격제약을 피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러한 임의적 범주를 설정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격제약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해도 뒤에 논의되듯이 consider 등의 하위범주조건문제는 그대로 남게 된다.

6) 이러한 두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Stowell (1983)은 다음과 같이 지배의 개념을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 (i)  $\alpha$  governs  $\beta$  in  $\gamma$ , where  
a.  $\gamma$  is an X-bar projection of  $\alpha$ ,  
b. There is no  $\delta$ , such that  $\delta \neq \alpha$  and  $\delta$  governs  $\beta$ ,  
c.  $\gamma$  is [... $\alpha$ ... $\beta$ ...] for head-initial languages but [... $\beta$ ... $\alpha$ ...] for head-final languages.

위의 정의에서 (a)는  $\alpha$ 가 어휘범주임을 시사하고 지배 범위는  $\alpha$ 의 최대범주가 됨을 명시한다. (b)는 한 지배자(governor)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성분은 또 다른 지배자에 의해 이중으로 지배될 수 없음을 명시한다. (c)는 지배의 방향이 언어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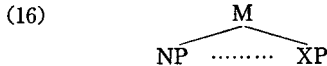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지배개념은 양동휘(1984)에서 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자세한 논의를 피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의에 입각한 주어(主語)를 구조적 주어(structural subject)와 대조적으로 주술관계적 주어(predicational subject) 혹은 개념적 주어(notional subject)라 한다. 핵주술관계라 함은 VP, AP, PP, NP, S 등으로 '소절'을 분류하는 경우이고 비핵주술관계는 관계절(relative clause), 의무적 통제절(obligatory control clause), 목적의 부사절(purpose clause), 분열구문(cleft clause), 주제절(topical clause) 등에 나타나는 관계를 말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15) a. [<sub>S</sub> John is sick]  
 b. [<sub>PP</sub> with John sick]  
 c. [<sub>NP</sub> John's seeing Bill]

Williams (1983)에 따르면 (15a~c)의 모든 구문은 핵주술관계를 보여주는 경우이다. 핵주술관계의 모형을 (16)과 같이 표현해 보자.



(15a)는 M=S인 경우이고<sup>7)</sup>, (15b)는 M=PP, (15c)는 M=NP인 경우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15)의 각 구조에서 *John*은 항상 서술관계적 주어(主語)가 되지만 항상 구조적인 주어(主語)는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15a)의 경우에만 *John*은 AP인 *sick*의 구조적 주어(主語)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주어를 구조적으로 정의하는 소절분석의 입장은 (15)의 모든 경우에서 *John*은 의미적으로 주어(主語)가 되고 뒤따르는 술부(述部)와 주술관계가 성립함을 밝히지 못하는 난점이 있다.

비핵주술관계의 경우를 간단히 (17)의 예문을 통하여 생각해 보자.

- (17) I saw [<sub>M</sub> the man; [<sub>XP</sub> whom I love *t<sub>i</sub>*]]

이는 관계절로서 NP *the man*은 구조적 주어(主語)는 아니지만 XP(여기서는  $\bar{S}$ )의 서술관계적 주어(主語)가 된다. 이와 같이 주술관계의 바탕 위에서 '소절'을 분석하면 '의미상의 주어'라는 전통문법의 개념을 문법에서 형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같이 사실상 소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주술관계이론을 따르고 있는 입장으로는 Williams (1983), Rothstein (1985), 양동휘(개인 면담) 등이 있고 본고도 이러한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본다.

이제 주로 Williams (1983), Rothstein (1985), Chomsky (1981), Stowell (1981, 1983) 등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예문들을 각각 분석해 보고 종래 소절의 존재를 인정했던 분석에서 큰 문제가 됐던 PRO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분석이 가능한가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18) I consider [<sub>α</sub> John sick]

7) (16)의 모형에서 알 수 있듯이 문장소절이란 핵주술관계의 한 경우로서 M=S인 경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alpha$ 는 Chomsky (1981)에 따르면 S가 되지만 보분소절 자체는 INFL이 없이 NP와 AP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있게 된다. Williams (1983)은 보문절 (complement clause)의 술어가 VP인 경우에만 S범주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경제적인 조건을 설정하게 된다.

(19) The VP Stipulation.

Only VP appears in the underlined position in the base rule for S:

S → NP       

(19)의 설정은 S가 NP와 VP로는 확장되지만 NP와 AP나 NP와 PP, 혹은 NP와 NP 등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X-bar 이론의 정신을 따르면 S는  $\bar{I}$ 로서 [John sick]전체는 INFL이 없으므로 S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하면 (19)의 설정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 됨을 알 수 있다. 결국 (18)의 예문을 문장소절을 갖는 문장으로 분석하는 것은 옳지 못하므로 Stowell (1981)이 주장하듯이 (20)처럼 비문장소절을 갖는 문장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20) I consider [<sub>AP</sub> [<sub>NP</sub> John] [ <sub>$\bar{A}$</sub>  sick]]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앞서서도 지적되었듯이 NP *John*이 주절동사 *consider*로부터 격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즉 첫째, *John*과 *sick*는 의미상 주술관계에 있으면서도 *sick*이 최대범주가 아닌  $\bar{A}$ 인 관계로 Rothstein (1985)의 주술관계 연결규칙이 적용될 수 없다. 둘째, 동사의 *consider*의 하위범주조건이 [+\_\_AP]로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consider*는 하나의 절을 목적어로 취하기 때문이다.

만일 주술관계이론을 따르는 입장으로 분석한다면 (18)의 문장은 (21)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된다. Rothstein (1985)는 (18)의  $\alpha$ 가 S인 경우로 분석하지만 S가 I의 투사범주임을 고려할 때 그녀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

(21) I [<sub>VP</sub> consider [<sub>NP</sub> John] [<sub>AP</sub> sick]]

여기서 주절동사 *consider*는 *John*에게 격을 부여할 수 있고 모두 최대범주인 *John*과 *sick*은 서로 성분통어하므로 주술관계연결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며 주술관계를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소절분석보다 좋은 장점이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consider*의 통사적 하위범주조건은 (22a)와 같이 되지만 의미역 배당( $\theta$ -marking)을 위해서는 (22b)와 같이 하나의 단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22) a. consider [+ \_\_ NP AP]

b. consider [+ \_\_ [(NP AP)]]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Rothstein (1985)이 (23)의 유사사역구문(quasi-causative construction)의 결과의 술부(resultative predicate)가 주절동사에 의해서 선택(select)된다고 지적하는 데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다.



- (23) a. John [VP painted [NP the house] [AP red]]  
 b. John [VP hammered [NP the steel] [AP hot]]  
 c. John [VP shot [NP the skunk] [AP dead]]

다만 예를 들어 (23a)의 *paint*는 통사적 하위범주조건이나 의미역 배당의 문제 두가지 모두를 위하여 (24)와 같은 하나의 하위범주조건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consider*의 경우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 (24) paint [+ \_\_\_\_ NP AP]

그러나 (21)의 *John*과 *sick*의 관계는 Rothstein (1985)이 1차적 주술관계라고 부르는 것이고 (23a)의 *the house*와 *red*의 관계는 2차적 주술관계임을 상기할 때 큰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고 보겠다. 다시 말해서, 하위범주조건은 통사적으로 관계되고 의미역 배당은 의미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충어구(complement)로 쓰인 보문소절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제 수식어구(modifier)로 쓰인 소절, 즉 부가소절의 경우를 살펴보자.

- (25) a. John left the room [<sub>α</sub> PRO [angry]]  
 b. John came home [<sub>α</sub> PRO [singing a song]]  
 c. John came home [<sub>α</sub> PRO [in a red shirt]]

소절의 존재를 인정하는 Chomsky (1981), Stowell (1981, 1983) 등의 소절이론 입장의 주장에서 보면 (25)의 예문들에 있어 PRO의 설정은 당연한 것이고 다만 이 PRO의 존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각 S,  $\bar{X}$  등의 범주를 설정하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은 이미 논의하였다. 양동휘(1984)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여 ADJ라는 범주의 설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뒤에 설명하겠지만, 결국 (26)과 같은 제약을 따로 필요로 하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 (26) ADJ is opaque to government.

그러나 PRO를 설정하지 않은 주술관계이론의 입장에서는 (25)의 예문을 (27)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 (27) a. John [VP came [home] [AP angry]]  
 b. John [VP came [home] [VP singing a song]]  
 c. John [VP came [home] [PP in a red shirt]]

예를 들어 (27a)의 경우에 있어 이러한 분석은 PRO의 지배 여부에 관한 문제는 아예 없애주는 장점이 있다. *John*은 VP 전체인 *came home angry*와 1차적 주술관계를 맺고 *angry*와는 2차적 주술관계를 맺으므로 *John*이 *angry*의 의미상 주어가 된다는 점도 깨끗이 해결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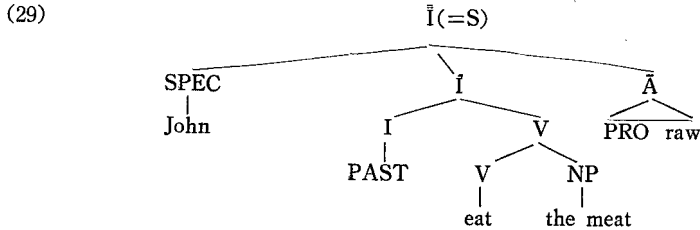
(25)의 예문들을 소절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분석함에 있어서, 부가소절의 주어 PRO는 모두 주절주어 *John*에게 통제(control)되고 있다. 그리고 통제자(controller)인 *John*은

PRO를 성분통어하고 있어서 국부적 통제(local control)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그런데 다음 (28)의 예문들에 있어서는 부가소절의 PRO가 주절의 비주어(non-subject)에게 통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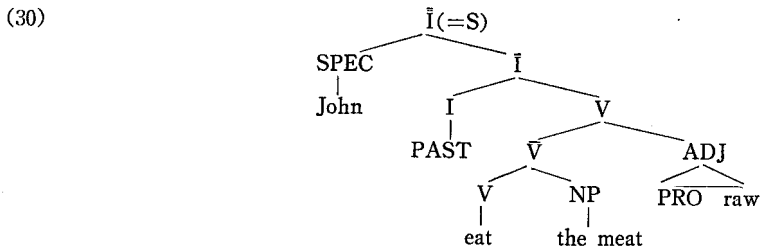
- (28) a. John ate the meat [ $\alpha$  PRO [ $\beta$  raw]]  
 b. John rolled the dough [ $\alpha$  PRO [ $\beta$  into a ball]]

(25)와 (28)의 부가소절의 차이를 양동휘(1984)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25)의 경우는 통제자가 PRO를 성분통어해야 되지만 (28)의 경우에는 만일 부가소절의 범주  $\alpha$ 를  $\bar{A}$ ,  $\bar{P}$ 로  $\beta$ 를  $\bar{A}$ ,  $\bar{P}$ 로 각각 설정하면 통제자가 PRO를 성분통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29)의 구조를 보자.

(29)의 경우 V 밑에 있는 목적어가  $\bar{I}$  밑에 있는 부가소절의 주어를 성분통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동휘(1984)는 (27)에서와 같이 비주어 통제를 받는 부가소절의 구조를 (30)과 같이 할 것을 제안한다.



(30)과 같은 분석은 양동휘(1984)에 지적된 바와 같이 지시적 어구(referring phrase)에 대한 지배제약을 없앨 수 있어서 나은 점이 있으나 PRO는 동사 eat에 의하여 지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해 (26)과 같은 지배에 대한 제약 조건을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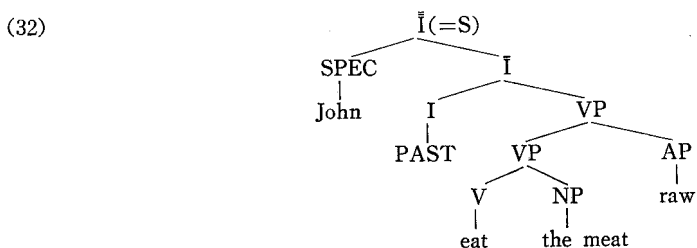
- (26) ADJ is opaque to government.

(26)을 받아들일 때 부가소절의 주어 자리가 지배되지 않는 것을 즉시 설명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지배에 대한 제약 조건 자체가 문법에 존재해야 한다는 점은 역시 또 다른 하나의 문제라고 하겠다.

그러면 (28)과 같은 소위 비주어 통제 구문이 주술관계이론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보자. 주술관계이론에 따르면 (28)의 구조는 PRO를 설정하지 않은 채로 (32)와 같이 된다.

- (31) a. John [ $\bar{V}P$  [ $VP$  ate [ $NP$  the meat] [ $AP$  raw]]]  
 b. John [ $\bar{V}P$  [ $VP$  rolled [ $NP$  the dough] [ $PP$  into a ball]]]

우선 (31a)에서 모두 최대범주인 *the meat*와 *raw*는  $\bar{V}P$ 가 최대범주이므로 AS지배 개념에 따라 서로 성분통어하고 따라서 주술관계연결규칙에 의해 연결되어 2차적 주술관계를 이루게 되며 주어 *John*과 전체 술부인 *ate the meat raw*도 또한 모두 최대범주로서 서로 성분통어하므로 1차적 주술관계를 이루게 된다. 이를 수행도로 설명하면 (32)와 같다.



(31b)의 경우도 (31a)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주술관계이론은 소절분석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상승 구문(raising construction)도 무리없이 설명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33) a. John<sub>i</sub> seems [ $\alpha$   $t_i$  sick]  
 b. John<sub>i</sub> seems [ $\alpha$   $t_i$  to be sick]

먼저 (33a)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소절을 인정하는 Chomsky(1981)와 Stowell(1981)의 입장에서는 각각 (34a)와 (34b)와 같은 구조를 설정하게 된다.

- (34) a. John<sub>i</sub> seems [ $s$   $t_i$  sick]  
 b. John<sub>i</sub> seems [ $AP$  [ $NP$   $t_i$ ] [ $\bar{A}$  sick]]

(34a)의 경우 *John*은  $\alpha$ -이동(Move- $\alpha$ )에 의하여 문장의 주어 자리로 나오고  $t_i$ 는 주절 동사 *seem*에 의해 특수지배(property govern) 되므로 공범주원리(Empty Category Principle, ECP)를 만족시킨다. 그러나 X-bar 이론의 정신에 따르면 [ $t_i$  sick] 내에는 INFL이 없으므로 그 범주가 INFL의 최대투사인  $\bar{I}$  즉, S로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장소절 분석은 문제가 있다고 보겠다. (35b)와 같은 분석은 더욱 많은 문제점을 갖는다.  $\alpha$ -이동에 의하여 주어 자리로 이동된 *John*,에 의해  $t_i$ 가 남게 되지만 최대투사범주인 AP에 의하여 주절 동사 *seem*은 뒤따르는  $t_i$ 를 특수지배는 물론 지배조차 할 수 없으므로 공범주원리를 위배하게 된다. 둘째, *sick*의 범주가 최대범주가 아닌  $\bar{A}$ 로 설정되었으므로  $t_i$ 와 서로 성분통어는 하지만 주술관계연결규칙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주술관계로 연결될 수 없다. 즉  $t_i$ 와 *sick*이 의미상 주술관계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술관계로 연결될 수 없으며 따라서 Rothstein(1985)의 주장에 따라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4b)는 문법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주술관계이론의 분석에 따르면 (33a)는 (35)와 같이 분석된다.

(35) [NP John] seems [AP sick]<sup>8)</sup>

(35)와 같은 분석은 이동된 성분이 없으므로 공범주원리의 문제도 없고 다만 *John*과 *sick*이 주술관계로 연결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과연 *John*과 *sick*은 모두 최대범주이고 서로 성분통어하므로 주술관계연결규칙의 적용으로 주술관계임이 확인된다.

(33b)의 경우는 Chomsky(1981)의 문장소절 분석의 입장이나 주술관계이론의 입장이나 모두 동일하게 (36a)로 분석되지만 비문장소절 분석을 시도하는 Stowell(1981)의 주장을 따르면 (36b)와 같이 분석될 수 있겠다.

(36) a. John<sub>i</sub> seems [s t<sub>i</sub> to be sick]<sup>9)</sup>  
 b. John [VP seems [I to [v be [AP sick]]]]

(36a)의 경우는 t<sub>i</sub>가 주절동사 *seem*에 의해 특수지배되어 공범주원리를 만족시키고 또한 t<sub>i</sub>와 *sick*이 주술관계연결규칙에 의해 연결되므로 이상적인 분석이 됐다고 볼 수 있으나 (36b)의 경우는 주어 *John*과 술부 *sick*이 모두 최대범주이기는 하지만 서로 성분통어할 수 없으므로 주술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33b)의 경우도 주술관계 분석이 소절 분석보다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좋은 예라 하겠다.

다음으로 *to* 없는 부정사(naked infinitive)를 보충어구로 취하는 지각동사(perception verb)와 사역동사(causative verb)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37) a. I saw [<sub>α</sub> John [<sub>β</sub> leave]]  
 b. I made [<sub>α</sub> John [<sub>β</sub> leave]]

Stowell(1981)에 따르면 (37a, b)에서 α는 VP, β는  $\bar{V}$ 로 각각 범주가 설정되지만 그렇게 되면, 이미 여러 번 지적된 바와 같이 *leave*가 최대범주가 아닌 관계로 주술관계연결규칙이 적용될 수 없으며 또한 주절동사 *saw*나 *made*가 최대범주 α 즉, VP에 딱혀 *John*을 지배할 수 없고 따라서 격도 줄 수 없으므로 격계약도 어기게 된다. 여기서 만일 *to* 없는 부정사 구문도 *to*-부정사 구문과 마찬가지로 공범주 INFL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양 구문의 분석에 있어 통일성도 꾀할 수 있고 지각동사나 사역동사는 하나의 사건을 목적으로 취한다는 의미적 관계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sup>10)</sup> 즉 (37)의 구조를 (38)과 같이 설정해 볼 수 있겠다.

(38) a. I saw [s [NP John] [I e] [VP leave]]  
 b. I made [s [NP John] [I e] [VP leave]]

여기서 *saw*와 *made*는 S 전체에게 의미역(θ-role)을 배당하므로 우리의 직관에 맞고, *John*

8) Rothstein (1985)에 따르면 *seem*은 *appear*와 함께 계사(copula) *be*처럼 어휘적(lexical) INFL로 볼 수 있다.

9) *to*-부정사 구문의 *to*는 INFL로 볼 수 있음을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증명된 바 있다. (Chomsky (1981), Stowell (1981), 양동희 (1984))

10)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공범주 INFL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Hornstein and Lightfoot (1984)에서 제안되고 있다.

과 *leave*가 모두 최대범주로서 서로 성분통어하므로 주술관계규칙으로 연결되어 1차적 주술 관계를 이루게 되므로 그럴듯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의 보충어절의 범주가 S가 되지 못함은 Williams(1983)에 의해 몇가지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첫째, *to* 없는 부정사 구문은 양화사(quantifier)의 의미 영역(scope)을 이루지 못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39) John saw someone leave.

(39)의 예문은 (40a)와 같이는 해석되지만 (40b)와 같이는 해석되지 않는다.

- (40) a.  $\exists x$  (John saw x leave)  
 b. John saw [ $\exists x$  (x leave)]

즉, *to* 없는 부정사 구문은 (40b)와 같은 의미영역을 갖는 것으로는 해석될 수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은 지각동사·사역동사가 취하는 목적어가 S범주를 취하는 절이라고 보기 어려움을 입증하는 훌륭한 논리라 하겠다. 둘째, *to* 없는 부정사 구문은 *to*-부정사 구문과는 달리 통제절(control clause)을 이루지 못하므로 S를 취한다고 보기 어렵다.

- (41) a. \*John<sub>i</sub> saw [<sub>s</sub> PRO<sub>i</sub> leave]  
 b. \*John<sub>i</sub> made [<sub>s</sub> PRO<sub>i</sub> leave]

마지막으로 *to* 없는 부정사 구문은 일반적인 S의 특성과는 달리 임의적 해석(arbitrary interpretation)을 갖는 PRO를 주어로 취하지 못한다.

(42) \*It is fun [<sub>s</sub> PRO<sub>a,r,b</sub> leave]

이상의 세 가지 이유로 인하여 지각·사역동사의 보충어절의 범주가 S가 되지 않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자.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Williams(1983)나 양동휘(개인 면담)의 제안처럼 (37)의 구조를 (43)처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3) a. I [<sub>VP</sub> saw [<sub>NP</sub> John] [<sub>VP</sub> leave]]  
 b. I [<sub>VP</sub> made [<sub>NP</sub> John] [<sub>VP</sub> leave]]

이러한 분석에 입각하면 주절동사에 의한 *John*에의 격부여도 순조롭고 *John*과 *leave*가 모두 최대범주이고 서로 성분통어하므로 주술관계연결규칙의 적용으로 주술관계로 연결되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see*나 *make* 등의 동사에 대한 하위범주조건을 (44)와 같이 설정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하위범주조건은 통사적인 현상이고 의미역 배당은 의미적 현상이므로 *John*과 *leave*가 Rothstein(1985)의 이론에 따라 1차적 주술관계를 이루게 된다면 (44)에서 지적된 하위범주조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서론에서 제시되었던 문장 (1a)의 비문법성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자.

(1a) \*John considers [PRO sick]

PRO를 설정하지 않는 주술관계이론의 분석에 따르면 (1a)의 예문은 (45)와 같이 분석될 수 있다.

(45) John [<sub>VP</sub> considers [<sub>AP</sub> sick]]

여기서 주어 *John*과 술부 *considers sick*은 모두 최대범주이고 서로 성분통어하므로 주술 관계연결규칙의 적용을 받아 주술관계로 연결되어 문제가 없으나 또 하나의 술부 *sick*은 연결될 주어가 없다. 즉 모든 술부는 주어와 연결되어 주술관계를 이루어 포화상태(saturated)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Rothstein(1985, 6장)) 술부 *sick*은 연결될 주어가 없으므로 주술관계로 연결될 수 없고 따라서 비문법적임이 설명된다고 보겠다.

## 4. 결 론

Williams(1980)에 의하여 GB 이론에 소개된 주술관계이론은 여러가지 구문에 그 용도가 증명되고 그 효용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의 논의 자체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Rothstein(1985)에 의하여 비로소 이 주술관계이론은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종래의 '소절' 분석을 비롯한 여러가지 분석에 응용되기에 이르렀다.

본고에서는 Chomsky(1981)의 분석 이후 Stowell(1981, 1983), 양동휘(1984) 등에 의해 논의되었던 소절분석에서 PRO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주술관계이론에 입각하여 어떻게 PRO를 설정하지 않고 설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논의의 과정에서 같은 주술관계이론의 입장에서 분석을 시도한 Williams(1983)의 주장도 살펴서 그의 제안 중 일부는 문제점이 있음도 살폈으며 주술관계이론이 '소절'의 분석 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상승 구문이라든가 지각·사역동사의 구문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분석을 할 수 있음을 밝혔다. 본고의 정신상 결국 영어에는 소위 소절이라는 구문이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겠다.

주술관계이론은 지극히 실질적(substantive)이고 이론외적(theory-external)인 주술관계에 대한 이론이므로 언어학 연구의 바탕을 이룬다 하겠으며 앞으로 양동휘(준비중), 김선웅(준비중) 등에 의하여 그 실제적 효용성이 충분히 입증되리라 믿는다.

## 참 고 문 헌

- 김선웅(준비중) "A Predication Approach to Nominal Interpretation."  
 양동휘(1984) "영어의 보문소절과 부가소절", 「우보 장왕록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탑출판사, 서울.  
 양동휘(준비중) "A Predicational Parameter for Binding Theory."  
 Aoun, J. and D. Sportiche (1983) "On the Formal Theory of Government," *The Linguistic Review* 2, 211-236.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Dordrecht.  
 Hornstein, N. and D. Lightfoot (1984) "Rethinking Predication," ms., University of Maryland.  
 Rothstein, S. (1985) *The Syntactic Forms of Predication*, Ph. D. dissertation, MIT, reproduced by the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 Club.  
 Stowell, T. (1981) *Origins of Phrase Structure*, Ph. D. dissertation MIT.  
 Stowell, T. (1983) "Subject Across Categories," *The Linguistic Review* 2, 285-312.  
 Williams, E. (1980) "Predication," *Linguistic Inquiry* 11, 203-238.  
 Williams, E. (1983) "Against Small Clauses," *Linguistic Inquiry* 14, 287-308.